

선교사의 은퇴, 은퇴 후 선교

새로운 환경에서의 이웃됨은 반복된다

선교사 이전의 내 삶은 언제나 최고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자주 들은 이야기는 선교사 삶의 3단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객 단계입니다.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환경에 들어갈 때 모든 새로운 것이 새로운 체험이고, 이 '다름'이 선교의 여정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두 번째는 향수와 회의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 경험에서 오는 만족보다 익숙하고 편한 삶이 그리워지고, 닥쳐오는 불편과 사용당한다는 불만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이웃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이전과 다르지만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선교지를 옮겨 가며 반복되었습니다.

은퇴 후 삶의 4단계

TED Talk에서 은퇴 후 삶의 4단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휴가(vacation)입니다. 시간에 쫓겨 즐기지 못했던 체험들을 만끽하는 기간으로, 대개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2단계는 공허와 혼돈(loss and lost) 단계입니다. 직장을 떠나며 사라진 지위, 목표와 자존감의 상실이 공허함과 우울증에 잠기게 합니다.

3단계는 실험과 실패의 반복(trial and error) 단계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의미 있는 일들을 시도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때문에 실망하곤 합니다.

4단계는 자신의 기대와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비하여 이웃을 돕는 삶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고 풍성한 삶을 즐기게 되는 단계입니다.

TaxAide — 이웃의 기쁨과 근심에 동참하기

뉴욕 주로 온 후 AARP와 IRS가 공동 주관하는 TaxAide 세금 보고 보조 업무에 참여하면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삶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TaxAide 운영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보았지만, 이제 내게는 이웃의 기쁨과 근심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어 관리자의 책임은 내려놓고 세금 보고 업무가 내 기쁨의 통로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움이 크면 기쁨도 큼니다. 새로운 환경마다 이웃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 끝나지 않습니다.

소그룹 나눔 자료

이 이야기는 선교사와 은퇴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겪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어디서 끝나는지 — 4단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이 나눔의 핵심입니다.

— 교회 공동체 —

20-35세 | 교회 모임

도입 (5분)

- 새로운 환경(학교, 직장,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단계를 경험했나요?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본문 나눔 (20분)

- 관계가 '이웃'으로 정착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 선교사 3단계와 은퇴 후 4단계가 같은 구조라는 것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단계(향수와 회의, 또는 공허와 혼돈)에 있을 때 무엇이 3단계, 4단계로 이끌었나요?
- '이웃됨'을 선택하는 것이 단계를 앞당길 수 있다면 —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연결 (10분)

룻기 1:16 —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 새로운 환경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아브라함, 룻, 바울)은 어떤 단계를 겪었나요? 그들에게 4단계는 어떻게 왔나요?

삶에 적용 (5분)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이웃됨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36-60세 | 교회 모임

도입 (5분)

- 지금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 중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본문 나눔 (20분)

- 후반부의 삶에서 '이웃됨'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나요?
- 섬김의 방식이 '관리'에서 '동행'으로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 박 선교사가 관리자를 내려놓고 세금 보고 업무로 돌아간 것 — 그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과정에서 시도하고 실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경 연결 (10분)

빌립보서 4:11 —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 '자족'은 체념인가요, 선택인가요? 박 선교사의 4단계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삶에 적용 (5분)

-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관리'가 아닌 '동행'으로 섬길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60세 이상 | 교회 모임

도입 (5분)

- 은퇴 후 어느 단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4단계의 기쁨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야기 나눔 (20분)

- 지금 내 주변에서 작은 일로 이웃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어려움이 크면 기쁨도 크다"는 말이 내 삶에서 어떻게 사실이었습니까?
- 4단계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면 — 언제 그 선택을 하셨나요, 또는 하고 싶으신가요?

성경 연결 (10분)

시편 92:14 —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 풍성한 삶이 나이와 무관하다면 — 지금 이 계절에 어떤 결실이 가능할까요?

삶에 적용 (5분)

-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반 커뮤니티 —

20-35세 | 커뮤니티 모임

이야기 들어가기 (5분)

- 새로운 환경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단계를 경험했나요?

함께 생각해 봐요 (20분)

- 그 환경에서 진짜 '이웃 관계'가 생긴 순간이 있었나요? 무엇이 계기가 되었나요?
- 2단계(공허, 향수)를 빠져나오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 '관리자'와 '동행자'의 차이 — 어느 역할이 더 의미 있었나요?

한 발 더 (10분)

- 이 단계 구조가 이민, 직업 전환, 결혼, 새 도시 이사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실천 (5분)

- 지금 2단계에 있다면 — 4단계를 향한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36-60세 | 커뮤니티 모임

이야기 들어가기 (5분)

-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중 내려놓으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함께 생각해 봐요 (20분)

-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과정에서 시도하고 실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역할'과 '관계' 중 어느 것이 더 지속적인 만족을 주나요?
- 박 선교사님의 TaxAide 봉사 —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발 더 (10분)

- 진정한 리더십은 관리하는 것인가요, 함께 있어주는 것인가요?

오늘의 실천 (5분)

-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60세 이상 | 커뮤니티 모임

이야기 들어가기 (5분)

- 은퇴 후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이야기 나눔 (20분)

- 주변의 이웃을 돕는 작은 일이 큰 기쁨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어려움이 크면 기쁨도 크다' — 이 말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들리나요?

오늘의 실천 (5분)

- 오늘 모임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을 나눠주세요.

인도자 가이드

이 이야기의 핵심

선교지의 3단계와 은퇴 후 4단계가 같은 구조임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4단계는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니라 — 이웃됨을 선택할 때 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다루는 것

- ① 새로운 환경마다 반복되는 단계 — 선교사도, 은퇴자도, 이민자도 같은 과정을 겪는다
- ② 4단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됨을 선택할 때 온다
- ③ 관리자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이웃됨의 길이다

모임 시작 방법

- ✓ "새로운 환경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로 시작하세요. 은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한 전환의 이야기로 열면, 모든 연령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주의할 순간

- △ 은퇴 계획 논쟁 "어떻게 은퇴할 것인가"로 흐르지 않도록.
전환: "이야기는 계획이 아니라 단계를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 △ 단계 분류에만 머무는 경우 자기 성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전환: "단계를 아는 것보다 —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나는 이미 4단계" 자기 정당화 깊은 성찰 없이 닫힐 수 있음.

전환: "4단계도 완성이 아닙니다. 박 선교사님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계절에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그룹별 접근

은퇴 전후 그룹: 2단계(공허와 혼돈)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공간을 만드세요. 많은 분이 그 단계를 숨기고 있습니다.

청년 그룹: 이 단계 구조가 직업 전환, 이민, 새 도시, 결혼에도 적용됩니다. 선교사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전환 이야기로 초대하세요.

한국계 미국인 그룹: 이민 자체가 이 단계 구조와 겹칩니다. 그 경험을 직접 연결해도 좋습니다.

마무리

|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이웃됨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 이 질문으로 닫습니다.